

머리글

금번 「통합연구」 16호에는 지난 8월 중순 두레마을에서 개최한 통합연구 학회 때 발표된 논문 가운데 선별하여 실었다. 이 학술발표회에서는 “기독교 대학의 신학과 세계관”이란 주제의 심포지움과 함께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신학분야의 성경적 학문활동들의 연구결과가 논의되었다. 그간 통합연구 학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반 학문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학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독교학문 공동체를 형성키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제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서 금번에 약 20여편에 이르는 귀중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발표자들도 교수, 연구원, 목사, 목회자 사모, 교사, 학생, 실업인 등 여러 분야에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망라되었으며, 각 영역에서 그간 고민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학회지의 지면 관계상 그분들의 논문을 모두 실지 못했으며 전체 주제발표와 두 분의 일반 발표논문을 수록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기에 실린 글들 중, 지난 수많은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대천덕 신부님의 “미숙한 신학의 위험성”이란 논문은 기독교 대학의 신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을 재점검하도록 해 주었다. 완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는가를 지적하였다.

강영안 교수는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이란 논문을 통해 설립자 카이퍼의 노력에 의한 자유대학의 개교이후 변화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대학의 기독교성을 지속하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현재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 혹은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확인은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김성수 교수는 “기독교대학의 신학과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Dordt 대학과 남아공화국의 Potchefstroom 대학을 중심으로 세속대학과 다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 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그간 2년여간 미국의 위튼 대학과 위스콘신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 귀국한 양승훈 교수의 “위튼대학의 신학과 세계관”에서는 당 대학의 재정적인 문제, 졸업생의 진로문제, 남녀 학생수의 비율 문제 등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를 다룸으로써 한국에서 기독교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조상국 교수의 “복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논문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최근의 자본주의 논쟁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특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견해를 조심스럽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박정윤 교수의 “창조적 투자론”은 그가 연구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투자이론을 체계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성경에 근거한 창조적 투자론은 금생만이 아닌 내생의 영생천국을 위한 투자라고 언급하였다.

금번 학술발표회 기간 중 지난 1년 동안 본 학회지를 통해서 발표된 여러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제1회 “통합연구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여러 논문 중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와 환경과의 관계”(이광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육”(문선재) 등이 유력한 후보대상으로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이상규)이 선정되었다. 이상규 교수가 그의 수상 소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통합연구학회가 우리 학계와 교계에 왕적소명을 감당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값진 봉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통합연구」가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능력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1992. 10.

통합연구학회장

원동연